



在外科協에 보다 적극적 支援을...

지난 2월27일 재구라과한국 과학기술자연합회(在歐科聯) 吳榮錫회장이 모국과의 관련업무 협의의 및 신입인사차 귀국했다. 10일간의 짧은 일정 가운데 과기처, 환경처, 科總 및 한국화학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등 정부출연연구소와 기업연구소, 중소기업진흥공단, 복합재료관련 중소기업 등을 방문한 吳회장을 만나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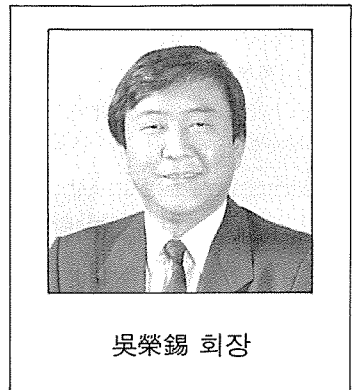
吳회장은 과기처와는 협력업무프로젝트를 협의하고, 환경처에서는 프랑스의 환경관련정책

및 법규를 소개, 학술교류에 관한 在歐科聯의 가교적역할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국내의 환경산업현황을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다고 한다.

또한 각 연구기관에 들러 관련분야 정보와 인력교류문제도 협의했다고 밝혔다.

吳회장은 임기중 주요추진사업을 이렇게 설계했다. 먼저 장기체류자보다 유학생이 많고 학위취득후 귀국을 희망하는 경향이 있어 유동회원이 많은 在歐科聯의 특징적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회원현황에 관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인력자원의 활용과 회원교류의 활성을 극대화할 방침. 이와함께 새로이 구상한 재외한국과학기술자전문학술대회를 특정연구분야를 선정, 개최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 3월에 在美科協 회장을 만날 계획임을 밝혔다.



吳榮錫 회장

이외에도 유럽의 3개과협(獨·英·佛) 공동전문학술대회 개최와 국내협력업무를 확대발전시키며, 각종 홍보사업 및 유럽의 과학기술동향을 국내에 소개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고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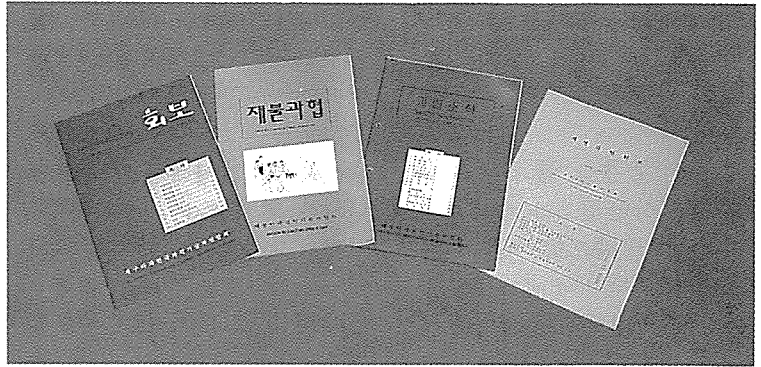
在歐科聯의 역할중 현시점에서 매우 긴급하다할 수 있는 선진첨단기술의 이전과 고급과학기술인력 유치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 吳회장은 科總의 「재외과학기술자유치센터」의 활성화와 과학재단의 「재외한국인2세 과학도연수」의 대상을 확대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과기처에 건의협의중인 「인턴연구원제」를 설명했다.

「인턴연구원제」란 국외에서 학위 3~4년차에 있는 학생들이 방학등을 이용하여 국내출연 및 기업체 연구기관에 단기간 근무하게 되는 것으로 기대효과가 클 것이라는 것. 우선 학생입장에서는 국내 연구방향과 기술애로사항을 이해하고 국내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설정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은 국외 연구정보와 고급인력 유치의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뮌회장은 在歐科聯의 활성화 방안으로 3개과협이 獨·英·佛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지역적으로 여건이 불리한 점을 감안, 사무실과 전담사무직원을 확보하므로써 업무의 유기적 협력을 도모하고 각종 홍보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현지 과학기술계와의 유대강화를 위해 회지를 통한 한국과학기술을 소개하게 되는데 영어 또는 현지언어를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폭넓은 학술정보수집과 회원참여의식 고취, 나아가 고급인력유치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모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조언으로 뮌회장은 유행성 연구과제가 많고 첨단과학에 대한 치중도가 높다고 지적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심층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실질적인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행정업무 등 연구



이외의 일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되며 연구에만 충실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어렵다고 말하면서 연구태도로서 하나의 성과에 만족하고 안위할 것이 아니라 활용의 확대와 재연구를 통한 새로운 개발을 할 수 있는 연구태도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한다. 産·學·官협동에 있어서도 단·중기사업은 산업체에, 중·장기사업은 학교와 연구소에 나누는등 보다 짜임새있는 협동체계가 어렵다고 덧붙인다.

또한 뮌회장은 재외과협의 활용적측면을 강조하면서, 국제적 공동프로젝트나 학술행사에 현지의 사정과 언어에 밝은 在外科協 과학기술인을 활용함으로써 정보전달 및 수집의 정확성과 기타 섭외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해준다.

연구인력 및 정보활용면에서 在歐科聯쪽에는 금속·기계·조선·전기·항공·자동차분야 뿐만 아니라 특히 최근에 컴퓨터공학(전산통신) 분야에 고급

인력이 많음을 지적하고 이 분야에 대한 모국의 기술적 활용을 기대했다.

그리고 국내과학기술계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지 및 회지등을 정기적으로 교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뮌회장은 현재 몇몇기관에 국한되어 있는 회지교류의 폭을 기업체 및 출연연구소 등으로 확대하고 과기처 등 정부시책의 방향을 접할 수 있는 정부·공공기관과의 교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룽 프랑(RHONE POULENC)연구소에서 기술고문을 맡고 있는 뮌회장은 『저녁에 연구소를 퇴근한 후 在歐科聯의 업무를 보다보면 늘 새벽 2~3시경에 잠에 들지요』라며 끝으로 현지 회원들이 각자의 업무의 시간을 활용해야하는 어려움과 자체사무실 및 사무직원을 갖추어 재정이 부족해 수익사업을 펼쳐야하는 현지상황들을 설명하면서 정부의 재외과협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확대를 희망했다. <吉>